

모녀관계에서 온라인상 친밀감의 변화 탐색: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남 순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온라인 대인관계의 변화 속에서 온라인상의 가족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유목적 편의표집에 따라 선정된 미혼여성 5명과 기혼여성 5명을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서 친밀감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긴밀한 연락과 깊어지는 애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딸이 지각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발달은 온라인 소통 회피기,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 그리고 온라인 소통 안정기로 변화하였다. 온라인 소통 회피기에 미혼의 딸의 온라인 활동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온라인 소통 탐색기에 어머니가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딸과 어머니는 온라인 소통을 시작한다. 온라인 소통 증폭기에 결혼은 주요 발달사건이다. 온라인상의 모녀관계는 결혼준비와 결혼 후에 더 돈독해졌다. 온라인 소통 안정기에 모녀관계는 매일 안부를 나누지는 않지만, 자녀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은 유용한 모녀관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녀간에 진심으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온라인상의 모녀관계, 친밀감, 질적 연구,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로의 전이, 초점집단면접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1-330-B00240)임.

† 교신저자 :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 junghye@korea.ac.kr

서론

부모자녀관계는 가족관계 중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관계이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3). 특히, 모녀관계는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 가장 지속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부모자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 생애 발달이론가들은 개인의 성인기 이후의 발달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개인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성인기에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Havighurst(1970)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와 성역할을 수용하고,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 배우자 선택과 가정형성은 중요한 발달단계이다. 또한 성인기 경력강화도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Vaillant(1977)는 하버드대학교 남자 졸업생을 종단 추적한 결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국내에서도 여성노인의 생애사(남순현, 2015a)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지되었다.

한편,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Carter와 McGoldrick(1980)은 최근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가족생애주기를 발표한 바 있다. Carter와 McGoldrick(1980)이 주장하는 성인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주요사건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신혼기에서 부모됨을 준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로 전이되는 전 과정, 즉 성인남녀의 시기, 신혼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3단계가 전 생애 발달이론가들이 개인의 발달단계와 구분하는 성인기이다. 미혼여성기 기혼여성으로 전이하는 심리적 변화과정을 근

거이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딸의 발달단계는 환상 속의 미혼기, 전략적 기혼기, 책임적 적응기의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주연, 김진숙, 2014). 이 과정에서 Bengtson과 Black(1973)와 Fisher(1981)는 성인 딸의 결혼이나 부모기로의 진입이 성인 딸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Walker, Thompson 및 Morgan(1987)은 미혼의 딸이 기혼의 딸보다 어머니와 더 밀착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는 딸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발달변화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로의 발달적 전이나 주요 사건 등이 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행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Bengtson et al., 1973; Fisher, 1981), 모녀관계의 변화가 결혼과 자녀출산과 양육의 공동경험에서 비롯된다면, 그 변화과정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미혼의 딸은 심리적 독립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모녀갈등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족문제 중 하나이다(김유숙, 2002). 딸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그 정체감을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Havighurst, 1970). 딸의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이성간의 친밀감형성은 성인기 주요한 발달과업이지만, 원가족의 지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Appleton, 1981;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Kerr & Bowen, 2005).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세대간 전수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남순현, 2009; 남순현, 최희경, 2006; Glenn & Kramer, 1987; Kerr et al., 2005; Milner &

Wilberly, 1980)은 아동학대와 알코올문제와 같은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순현과 한성열(2001)은 3세대 가족의 정서적 역동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수준 외에도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세대간 전수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이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상호친밀감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친밀감 또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론되며, 기혼의 딸이 결혼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호결속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그 이유는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송지은과 한경혜(1994)의 연구에서 남성의 부모됨은 여성처럼 결혼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관계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부모로서의 기쁨과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상은 기혼 딸의 자녀양육과정에서도 모녀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모녀관계의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혼의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많은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갈등관계에서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협조자의 관계로 변화한다. 신혼기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넘어가는 가족발달단계는 기혼 딸의 전략적 기혼기에서 책임적 적응기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남주연 외, 2014), 딸은 부모됨을 준비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도움과 지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녀양육방식에서 모녀간에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모녀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분명 미혼 딸이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친밀감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모녀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단계의 차이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녀관계는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결혼, 부모됨과 같은 생애 주요사건이 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최근 여권신장과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맞물려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결혼연령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결혼은 점점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여성의 만혼이 자연스런 사회변화가 되면서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주요 과업이고, 이 과정에서 원가족, 특히 어머니의 지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또한 SNS와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의 급속한 발전은 모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모녀관계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녀관계에서 결혼 후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거리이고, 모녀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최근 온라인 가족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미숙, 장화경, 홍미, 2006; 김종길, 박수호, 2010; 남순현, 권정혜, 2015; 이해영, 이여봉, 2001)이 시작되면서, 대인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상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청소년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외부세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위해 온라인 이용을 더 많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지보다는 하나의 간섭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Ledbetter, Heiss, Sibal, Lev, Battle-Fisher, & Shubert, 2010).

하지만 결혼과 부모됨은 성인기 주요발달과업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공동과업은 모녀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기 가족의 문제해결에 온라인 접촉이 친밀감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들(이해영 외, 2001; 차성란, 2005)들이 이를 지지한다. 이메일을 통한 가족 간의 빈번한 접촉은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해영 외, 2001),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해결에서 온라인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차성란, 2005). 이에 가족 간에 온라인 접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변화를 탐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기 온라인상의 모녀관계는 사춘기와 심리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동성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Ledbetter 외(2010) 등이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기 온라인상에서 어머니의 접촉은 간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딸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의 청중이 많은 온라인상에서 낯선 타인과 점점 관계를 확대해가는 경향(남순현, 2015b)을 보일 것이다. 반면, 성인기 온라인상의 모녀관계는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 등의 공동된 과업을 함께 수행해가면서 모녀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메일과 메신저 이용 외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모녀관계의 변화에 온라인이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근거리 뿐만 아니라 장거리에서도 블로그나 카페는 유용한 온라인 매체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생애 발달적 관점과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딸의 발달과 가족발달주기에서의 전이(transitions)나 발달적 사건들(family events)이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서 모녀간의 친밀감의 구조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딸이 지각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서 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 남녀의 시기, 신혼기, 어린 자녀를 둔 가족까지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새롭게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발달단계로의 전이와 주요 발달적 사건이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므로써,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발달적 변화에 따른 온라인상의 모녀간의 친밀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 미혼과 기혼여성의 모녀관계에 대한 대화내용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초점집단면접은 본 연구의 대상이 소수의 초점집단이고, 상호간의 집중대화를 통해서 모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딸이 지각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서 친밀감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성인남녀의 시기, 신혼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모녀관계에서 온라인상의 친밀감의 변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발달과업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각 발달단계로의 전이와 주요 발달사건이 딸이 지각하는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미혼여성 5명과 기혼여성 5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지인소개를 통해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해 모집되었다. 미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26.6세이고,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4.8세였다. 현재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1명에서 2명이었고, 모두 초혼이었다. 미혼여성 2명과 기혼여성 2명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기혼여성 1명은 전업주부였고, 나머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5명은 학생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명만 제외하고 모두 10년 이상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었고, 하루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다양했다. 미혼과 기혼여성은 어머니와 하루에 1시간 이상 온라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접촉의 주 매체는 카카오톡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온라인 접촉을 하는 주요 이유는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안부가 주 기능이었고,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안부 외에도 정서적 지지, 자녀소식, 갈등해결 및 정보공유 등 다양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은 어떤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초점집단(보통 5-7명)을 통해 주제의 핵심을 알아보는 방법이다(Morgan, 1998). FGI의 목적은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

인 대화를 통하여 공통된 주제에 관한 경험, 의미, 이해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FGI의 장점은 참여자 스스로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함으로써 스스로의 경험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FGI 방법은 소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FGI 방법은 다양한 입장과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연구주제를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Vaughn, Schumm, & Sinagub, 1996).

본 연구에서 FGI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미혼과 기혼의 여성이 한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을 교류하거나 토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FGI의 질문은 Krueger와 Casey(2009)의 제안을 참고하여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과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하였다. FGI는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개별적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도입질문으로 인터넷 사용기간과 주요 사용용도와 어머니와의 온라인 접촉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토론 중에는 연구자의 의견에 부연 설명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혀 보다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두 집단의 모든 FGI는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직접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FGI를 실시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다문화관련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에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집단	참여 자	연령	자녀 수	학력	가족 평균 월수입	직업	온라인 사용기간	온라인 이용시간	모와 온라인 주사용 매체	모와 온라인 접촉시간	모와 온라인 접촉 이유
미혼 여성 집단	1	26세	-	대졸	250- 350만원	학생	10년 이상	일 5시간	카카오톡	일 1시간	안부
	2	25세	-	대졸	450- 550만원	학생	10년 이상	일 3시간	카카오톡, 스카이프, 미니홈피	일 1시간	안부
	3	30세	-	대학원졸	450- 550만원	회사원	10년 이상	일 3시간	카카오톡, 스카이프	일 1시간	안부
	4	25세	-	대졸	250만원 미만	학생	10년 이상	일 3시간	카카오톡, 이메일, 카카오토티	일 1시간	가족행사 알림, 귀가시간확인, 안부, 정서적 지지
	5	27세	-	대학원졸	250만원 미만	연구원	7-9년 정도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미니홈피	일 3시간	안부, 예정표현, 갈등해결
	6	39세	1명	대학원졸	350- 450만원	전업주부	10년 이상	일 1시간	휴대폰문자, 페이스타임, 이메일, 밴드	일 3시간	안부, 예정표현, 정서적 지지
	7	30세	1명	대졸	350- 450만원	학생	10년 이상	일 3시간	이메일, 카카오톡	수시로	정보공유
기혼 여성 집단	8	32세	1명	대졸	550만원 이상	회사원	10년 이상	일 3시간	이메일, 카카오톡, 카카오토티, 미니홈피	수시로	안부, 자녀소식
	9	38세	2명	대학원졸	550만원 이상	프리랜서	10년 이상	일 5시간	이메일,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토티, 미니홈피	거의 하지 않음	안부, 가족행사
	10	34세	2명	대졸	250만원 미만	학생	10년 이상	일 5시간	이메일, 카카오톡	일 3시간	정서적 지지, 갈등해결, 정보공유

서 다년간 연구비를 수혜 받았으며, 현재 다양한 질적 연구들을 학술지에 발표해오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최근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온라인 대인관계를 탐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인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들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FGI를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주의깊게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특이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면접의 전 과정은 연구자가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다. 녹음된

모든 자료들은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이 축어록으로 전사하였다. FGI는 방음이 되는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집단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초점집단면접 분석방법 중 Richard와 Richard(1998)가 제안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근거하는 연구방법(Anderson, Rourke, Garrison, & Archer, 2001)이다. 다양한 텍스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양적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은 질적 자료인 음성이나 문자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양적 자료로 변환시켜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써(Rourke, Anderson, Garrison, & Archer, 2001), 주로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 기록을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Gunawardena, Carabajal, & Lowe,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텍스트를 처리하고 그로부터 추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절차와 과정(Poldner, Simons, Wijngaards, & van der Schaaf, 2012)을 거치는 내용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모녀관계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미혼과 기혼의 딸들의 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정에서 첫째,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둘째, 표면적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의 심층 내용을 추론해내고자 하며, 셋째, 이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전사된 축어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연구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의 전 과정에서 판단을 중지하고, 추출된 자료에서 의미있는 분석단위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분석단위들을 대표하는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넷째, 하위범주들을 대표하는 범주, 범주를 대표하는 주제를 구성하였다. 다섯째, 연구자는 추출된 범주와 주제가 의미범주를 잘 대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여섯째, 추출된 범주와 주제에 대한 최종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에 주목하면서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모녀관계의 친밀감 구조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나타나는 온라인상의 관계 변화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

본 연구에서는 후기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다원화, 참여자 확인, 외부감사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원화(triangulation)는 포괄적인 이해를 얻고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참여자의 확인(the use of informant or participant review)은 연구에 활용된 기술, 설명 및 해석 등을 연구참여자가 검토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엄격성을 피하는 것이다. 외부감사(audit trail)는 기술, 설명 및 연구에 따른 결정들의 타당성을 외부평가자가 감사하여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원화, 참여자와의 공

동작업, 질적 연구전문가의 외부감사를 통해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이메일과 직접 대면을 통해서 외부 감사자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세계에 근접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질 검증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철회 등을 사전에 고지해줌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한 후 각각 한 부씩 나눠가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모두 고유 사례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인사와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결 과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친밀감 구조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은 모두 현재 어머니와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타자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가르쳐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딸과 어머니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공간이었다.

딸은 어머니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녀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애정표현이 오프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됨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에서 친밀감에 대한 본질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긴밀한 연락과 깊어지는 애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Bengtson et al., 1973; Fisher, 1981; Walker, Thompson, et al., 1987)에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모녀간의 친밀감의 깊이는 모두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이해하는 폭에 있어서는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을 경험해본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사랑해요" 라고 말을 시작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하게 됐어요(미혼여성 3).

엄마 말고 인간으로서의 엄마에 대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미혼여성 4); 저는 엄마랑의 정서를 떨어뜨리고 싶진 않고, 엄마를 좀 더 이해하는 사람은 되고 싶어요. 엄마가 카카오토키, 카톡하는 걸 보면. 엄마도 하나의 여자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감정에 있어서 엄마를 배려하게 된다고 할까? (미혼여성 5).

전혀 온라인 소통이 없었거나 간단하게 이메일 정도의 온라인 소통을 해왔던 모녀간이

었지만, 특히 스마트폰 보급은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대학진학과 결혼을 통해서 딸과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접촉이 더 빈번해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집단보다도 가족은 더 '함께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 IT네트워크는 함께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범상규, 2015). 따라서 결혼 후 물리적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후 자녀소식을 전하는 용으로 온라인 접촉이 사용되고 있었다.

엄마가 카카오 아, 뭐지, 스마트폰 사시면서 카톡하면서 처음 하신 거고. 이메일은 했었는데 ... (미혼여성 4); 저는 대학오면서 엄마랑 떨어져 살게 됐거든요. 같이 살 때는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였는데. 처음에 대학 왔을 때는 주로 전화나 문자 같은 거? 그때는 그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3학년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엄마랑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미혼여성 2).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문자라든가 이런 걸 원래 자주 보냈었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 (기혼여성 7); 저희 아들이, 손자 하나니까. 개한테 보여주시는 게 취미세요(기혼여성 6).

미혼과 기혼여성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주로 하는 내용은 안부, 긴급연락 및 특별한 일이 없이 나누는 평상시 수다 등이었다.

사진 서로 많이 보내고. 이제 또 뭐, 안

부도 묻고. 그리고 사진공유 같은 거 많이 하고. 좋은 글귀? 뭐 재밌는 거?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요즘 같은 경우 애기사진 서로 많이 보내고. 엄마가 인터넷 쇼핑을 너무 좋아하셔서 ... 대화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렇게 ... (기혼여성 7).

그냥 거의 소식 전하고 안부 묻는 ... (미혼여성 2); 그냥 뭐, 데리러 나와라(미혼여성 1); 오늘 뭐, 급할 때 막, 돈 쥐, 이런 거. 계좌번호 알려줘 이런 거(미혼여성 5).

하지만 온라인 소통의 주 기능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문제중심에서 정서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관계개선이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모티콘과 같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상의 기능은 모녀관계에서 감정통제에 도움을 주었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온라인 소통은 모녀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갈등해결에서도 온라인의 신속성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프라인에서처럼, 마음속에 묵은 감정을 담아두지 않고 매순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는 점도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의 장점이다.

예전에 문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감정 중심? 뭔가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를 좀 이해해서 말을 하고 싶은? 엄마는 그거 하나에도 되게 힘이 난다고 느끼는 거죠, 저도(미혼여성 5); 엄마랑 저랑 싸웠을 때 미안하다고 말, 제가 절대 먼저 못하거든요. 오글거려요. 문자로 요즘에는. 막 좀 싸우거나 엄마한테 미안한 일 있으면 문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답장 안해도 그냥 다 읽고 이해하고 엄마도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 ... (미혼여성 1).

저는 오히려 다른 걸로 싸운 거를 카톡으로 푼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비는 걸 말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트 하나 보내든지 (중략) 온라인은 어떤 뭘 빨리 해결해야죠. 할 때, 빨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기혼여성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관계에서 딸은 사생활이 어머니에게 가감 없이 공개되는 부분을 꺼려했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솔직하게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딸도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나 큰 씬씀이 등은 어머니가 모르시길 바랐다.

엄마가 나한테 문자 보내도, 괜히 간섭하는 것 같고. 싸이 들어 올리는 데도 못들어오게 차단시키고. 내 공간인데. 이제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 ... (기혼여성 8).

저는 이제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데. 소소하게 제 생활을 알게 되니까. 소소하게 잔소리를 하시구요 (중략) 자랑삼아 사람들이 올리는 데.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못 사드리는데 난 너무 먹는 것처럼. 일부러 더 조금 덜 올리게 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기혼여성 8).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발달

지금은 온라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어머니와 딸의 소통 또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기부터 성인기의 딸과 어머니의 온라인상의 관계의 발달단계는 온라인 소통 회피기,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 온라인 소통 안정기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온라인 이용시점은 달랐지만,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모녀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시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이전에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는 메신저, 이메일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어머니에게 온라인이용은 딸의 청소년기에는 주로 교육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대학생 이후에는 안부와 귀가시간을 확인하는 용도였으며, 결혼 이후에는 손자녀 안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온라인상에서 딸과의 소통목적은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딸이 지각하기에 모녀간의 온라인 관계는 온라인 소통 회피기에 어머니는 딸의 온라인 활동을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싫어하지만, 온라인 소통 탐색기에 온라인을 접하게 되면서 소통의 편리함을 알게 되고, 온라인 소통 증폭기에 결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결혼 전후에 소통이 급격히 증가하며, 자녀출산 후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자녀양육 등을 상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소통 안정기를 맞이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소통 회피기는 딸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타인들과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온라인 소통이 간섭으로 작용하여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온라인 소통 탐색기는 모녀간에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못했던 애정표현을 서로가 조금씩 표현해보는 시기이다. 온라인 소통 증폭

기는 모녀간의 소통이 오프라인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애정표현은 물론 온라인이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시기이다. 온라인 소통 안정기는 온라인상의 모녀간의 소통이 오프라인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하나의 생활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이다.

온라인 소통 회피기

온라인 소통 회피기는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소통이라기보다는 딸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 어머니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가족발달단계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모녀관계는 딸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 미혼여성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재학기간동안에 사춘기를 경험하였다. 청소년기 딸의 어머니와의 온라인 소통은 메신저 확인이나 인터넷으로 이메일 정도 전송하는 수준에 그쳤다. 딸은 어머니의 온라인 소통을 간섭으로 지각하여 온라인에서 어머니에게 친구수락을 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이는 Ledbetter 외(2010)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SNS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친구들이 다보는. 페이스북에서 엄마가 친구 신청했는데 아직 수락 안했거든요(미혼여성 2).

어머니가 걱정이 좀 많으신데다가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아주 일부의 한정적인 정보밖에 줄 수 없는 사이를 하는 건 오히려 진짜 폭탄? 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다 달고 안해버렸어요. 스무살 때는 좀 놀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창 놀 때여가지고 그때 많이 숨겼었는데(미혼여성 3).

이 시기 온라인 소통에서 어머니의 주 기능은 학업재촉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딸의 온라인 활동이 학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심하게 반대하지도 않는 편이었다.

네이트온은 그런 거였어요. 감시용 있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면 딱 들어갔다고 뜨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가게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어요. 아, 온라인 매장. 그걸 항상 네이트온을 키고 계셨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서 제가 켜져 있으면 바로 집으로 전화 오는 거죠.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 끄고 공부하라고? 네, 그건 감시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미혼여성 5).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탐색기는 온라인상에서 모녀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라인상의 소통은 청소년기에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교나 대학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가족채팅방이 생기고, 딸은 어머니의 온라인 친구를 수락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상호관계를 탐색하면서 모녀관계는 애정표현이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음, 작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스마트폰 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족채팅방으로 ... (미혼여성 1); 지금 카톡으로 예쁜 말하고

막 그런다는 거는. 제가 엄마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가 이거 받고 되게 기뻐하면 좋겠다, 오늘 하루 즐거웠으면 좋겠다, 마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예전에 제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들로만 의사소통이 주로 됐다면. 카톡 하면서는 엄마 챙기려고. 약간 그런 걸로 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미혼여성 4).

이 시기는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성인기에 해당하며, 가족발달단계에서 성인 남녀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딸의 주요 발달과업은 정서적 독립이었다. 이 시기 딸이 강조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정서적 독립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분리가 아닌, 상호 배려와 이해 속에서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했다.

독립하고 싶다, 정서적으로 독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미혼여성 3).

정서적으로 분리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좀 떨어지구요. 어, 오히려 엄마한테 힘이 돼줄 수 있으려면 제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엄마를 제가 챙기는 존재? 좀 더? 제 느낌이나 뭐, 제 스스로 감정처리를 좀 더 잘하는 성인이 되고 싶어요(미혼여성 4).

온라인 소통 증폭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는 온라인상에서 모녀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애정표현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성인기에 해당하며, 가족발달단계에서 신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주요 사건은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증폭제가 된다. 결혼 전 결혼준비에서 결혼 후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모녀관계의 애뜻함을 나누는데 있어서 온라인 소통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결혼 후 물리적 거리는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때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의 주요내용은 안부와 시댁과의 관계였다. 따라서 모녀는 시댁식구가 있는 자리에서도 은밀하게 온라인 소통을 나누기도 하였다.

결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 (기혼여성 7); 결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 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제가 일하니까. 카톡이 있으니까 조금 길게 하고(기혼여성 10).

엄마랑 원래 되게 편한 관계예요. 잘 싸우기도 하고 금방 풀리기도 하고. 엄마보라고 only 엄마용으로 올렸어요(기혼여성 8).

좀 소원해지는 거 같아서. 엄마가 컴퓨터 배우시면서 “딸 잘 있나?” 이러면서 (중략) 시댁 식구들이 오래 안가시고 그러면 “엄마 힘들어” 메일 쓸 수도 있고. 문자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좀 숨통이 트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힘내라” 라고 응원 보내시고. 결혼 전에는 꿈도 못 꿨던 ... (기혼여성 6).

따라서 이 시기 관계증진을 위한 딸의 주요 발달과업은 지속적인 애정표현이었다. Erikson은 성인기 발달과업을 친밀감이라고 하였다. 이성간의 친밀감 형성이 가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시기 모녀관계에서도 결혼 후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결혼준비기 다소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이나 기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간단한 애정표현? 고마운 일이라든가? 진짜 고맙 ... 하트가 달린 이모티콘이 많잖아요. 엄마도 웃겨하시니까(기혼여성 7).

표현도 잘 안하고, 꽃 사는 것도 싫어하고. 꽃 그림은 보낼 수 있으니까 ...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답변 드리고 할 때는 또 편하고 해서. 더 좋아진, 더 친밀해진 조금은 더 친밀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기혼여성 9).

온라인 소통 안정기

온라인 소통 안정기는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보다 더 편리하게 일상생활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혼의 딸은 어머니를 한 여성이자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된다.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에서 딸의 자녀출산과 양육은 공동과업 수행이라는 과제를 준다. 온라인 소통은 자녀소식을 전하고,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했다. 또한 이 시기는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성인기에 해당하지만, 가족발달단계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녀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녀소식을 주고받았다. 이 시기에 기혼여성은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편리하게 자녀양육에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도 안정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기혼여성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는 반면, 어머니는 기혼여성에게 온라인 쇼핑과 같은 일

상생활의 도움을 받았다.

안부는 안 묻는데, 제가 일할 때나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앞뒤로 애들을 봐주시니깐 전달용으로 많이 사용을 ... (기혼여성 10); 2001년, 2002년 돌아와서 싸이 시작한 거 같고. 싸이는 주로 애들 사진 올리는 걸로 하고 보시고 ... (기혼여성 9).

쇼핑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셔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못하셔서. 그 부분은 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니까. 컴퓨터 켜 놓고 페이스북, 또 아이패드를 갖다 대면서 마음에 드냐고 여쭙봐요(기혼여성 6).

이 시기 기혼여성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어머니와 유사한 삶을 산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꼈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엄마처럼, 나도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 같다 라는.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와 사고가 비슷해지고. 여자의 삶을 살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기혼여성 9).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온라인 사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변화하는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목적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미혼여성 5명과 기혼여성 5명에게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딸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친밀감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긴밀한 연락과 깊어지는 애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대면관계에서 직접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녀간의 온라인상에서의 애정표현은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딸에 대한 이해와 딸의 어머니에 대한 이해는 모녀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켰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였다.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이 유용한 이유는 첫째, 대학 진학과 결혼과 같은 물리적 거리가 발생했을 때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 문제 중심의 해결적 사고를 정서 중심의 해결적 사고로 전환해준다. 셋째, 상호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머니는 딸에게 온라인상의 다양한 기능, 예컨대 온라인 쇼핑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온라인 소통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친척과 시댁모임에서 온라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뒷 담화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비밀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통은 평상시에도 개인의 일상적인 일과를 수행하면서 편리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모녀관계가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딸은 어머니의 온라인 활동이 간섭으로 느껴져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미혼과 기혼의 딸은 모두 어머니의 온라인 활동을 점차 이해하게 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가감 없

이 일상을 전부 공개하기를 꺼려하였다. 하지만 미혼과 기혼의 딸은 어머니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따라서 선행연구자들(Bengtson et al., 1973; Fisher, 1981; Walker, Thompson et al., 1987)이 모녀간의 친밀감에는 미혼과 기혼의 딸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모녀간의 친밀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발달은 온라인 소통 회피기,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 온라인 소통 안정기로 진행되었다. 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소통 회피기에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혹 간단한 이메일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 딸의 온라인 활동에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가 부족하고, 어머니는 딸의 온라인 활동이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은 감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갈등은 어머니의 온라인 친구 수락하지 않기, 온라인 활동 안하기, 간단하게 문자로만 필요한 말 전하기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dbetter 외(2010)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청소년기 딸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낯선 타인과 접촉하며 상상의 청중을 넓혀가지만(남순현, 2015b), 어머니와의 접촉은 간섭으로 여겨져 회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온라인 소통 탐색기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미혼과 기혼여성 모두 미니홈피 등에서 어머니와 간단한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 시기 온라인 탐색을 활성화시켰다.

모녀간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았고,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정 표현을 하게 되었다. Erikson과 Havighurst가 청소년기 심리적 독립을 강조한 것처럼, 이 시기 미혼여성도 온라인 탐색에서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혼의 딸은 온라인상에서 어머니의 활동을 이해해가면서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길 바랐다.

온라인 소통 증폭기는 결혼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혼 전 미혼의 딸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선택과 결혼준비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에 감정이 쌓이지 않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온라인 소통이었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녀간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간다. 때문에 이 시기 온라인 소통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온라인 소통은 결혼 후 모녀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준다. 결혼 후 모녀간의 안부를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온라인 소통이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녀는 온라인으로 서로간의 일상적인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애뜻함을 느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온라인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인 애정표현이다.

온라인 소통 안정기는 기혼의 딸이 자녀를 출산한 후 양육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녀는 온라인상으로 매일 안부를 전하지 않지만, 긴급하게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기혼의 딸은 어머니에게 자녀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전용 블로그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 시기에 기혼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삶을 직접 살면서 어머니와 유

사한 사고를 하는 자신에게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를 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자들(Bengtson et al., 1973; Fisher, 1981; Walker et al., 1987)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여성이 기혼의 여성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거나 기혼의 여성이 미혼의 여성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미혼과 기혼의 딸이 어머니와 느끼는 친밀감의 강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단지 기혼의 여성은 미혼의 여성보다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의 공동경험 등으로 어머니와의 친밀감의 폭이 넓다는 차이를 보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춘기를 지나서 모녀간에 상호 온라인 활동을 이해하면서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혼여성은 결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배려를 보였다. 기혼여성은 결혼 전 결혼준비과정에서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혼 후 친밀감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온라인 소통은 갈등화해, 애정표현 및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모녀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의사소통체계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손자녀였고, 온라인 소통은 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딸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변화에서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었다. 딸의 결혼은 어머니의 개입, 의견 차이와 갈등을 낳는다. 이 시기에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간의 애정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는 Ledbetter 외(2010)가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의 온라인 활동이 딸에게 간섭으로 느껴지더라도, 어느 시기에 딸이 어머니의 간섭 또한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모녀간의 친밀감의 변화는 결혼이라는 생애 주요사건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이 증폭시킴을 시사한다. 또한 미혼의 딸과 달리,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과 같은 어머니와의 공동경험과 모녀가 함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친밀감의 폭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해보면, 온라인상의 관계에서 미혼여성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상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반면에 온라인상의 관계에서 기혼여성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기혼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대인관계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가족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온라인 모녀관계를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청소년기 딸의 성인기로의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의 친밀감의 변화를 딸이 지각하는 모녀간의 온라인 소통을 통해 살펴보고, 그 변화과정을 최초로 발달단계별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내용분석은 최근 온라인 의사소통기록을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소수의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인식과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는 초점집단면접을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

인 대인관계연구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들을 통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편포이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두 집단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수준, 직업 및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편포되지 않도록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스마트폰 보급시기가 대부분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기 온라인 소통 회피기를 겪은 후에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의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모녀간의 온라인상의 발달단계를 탐색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은 이미 보편화되어있다. 따라서 향후 모녀관계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기 보다는 모녀간의 온라인 시작점으로부터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 온라인 소통 안정기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통이 증가하는 과정만을 탐색했다. 하지만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에서의 갈등과 온라인 소통이 소원해지는 과정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변화가 온라인 소통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생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미혼과 기혼의 딸의 입장에서 딸이 지각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온라인상의 모녀관계를 탐색하여 본 연

구와의 결과를 비교해보거나 혹은 모녀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모녀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상의 가족관계를 전 생애 발달단계와 가족 발달단계를 함께 비교하여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 장화경, 홍 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정서 기능 변화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종길, 박수호 (2010).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가을/겨울, 143-281.
- 김유숙 (2002).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남순현 (2009).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아동기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6(3), 185-201.
- 남순현 (2015a).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인간발달연구, 22(2), 1-27.
- 남순현 (2015b).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2.
- 남순현, 권정혜 (201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교류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53-374.
- 남순현, 최희경 (2006). 신체학대,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모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97-908.
- 남순현, 한성열 (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 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25-640.
- 남주연, 김진숙 (2014).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의 이행에서 심리적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59-786.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범상규 (2015). 멍청한 소비자들. 서울: 매경출판사.
- 송지은, 한경혜 (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대한가정학회지, 32(4), 73-83.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3).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혜영, 이여봉 (2001). 이메일 활용과 가족 관계. 가족과 문화, 13(2), 107-135.
- 차성란 (2005). 가족원들의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 실태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5(2), 71-93.
- Anderson, T., Rourke, L., Garrison, D. R., & Archer, W. (2001). Assessing teaching presence in a computer conference context.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5(2), 1-17.
- Appleton, W. S. (1981). *Father and daughter: A father's powerful influence on a woman's life*. Doubleday & Company, Inc., NY: Garden City.

- Bengtson, V. L., & Black, K. O. (1973).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In P. B. Baltes & K. W. Schaie(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pp. 208-233). New York: Academic Press.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Carter, E. A.,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distributed by Halsted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Fisher, P. (1981). *My growing-up years: Kerym Lee Fisher*.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22-826.
- Gunawardena, C. N., Carabajal, K., & Lowe, C. A. (2001). *Critical analysis of models and methods used to evaluate online learning networks*. 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Meeting. Seattl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Havighurst, R. J. (1970). The education of Indian children and youths. *National study of American Indian education: Summary report and recommendations. Series 4, 6*, U.S. Office of Education. Washington D. C..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남순현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88년 출판).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t. Paul, MN.
- Ledbetter, A. M., Heiss, S., Sibal, K., Lev, E., Battle-Fisher, M., & Shubert, N. (2010). Parental invasive and children's defensive behaviors at home and away at college: Mediated communication and privacy boundary management. *Communication Studies*, 61, 184-204.
- Milner, J. S., & Wilberly, R. (1980). Prediction and explana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875-884.
- Morgan, D. L. (1998). *Planning focus group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oldner, E., Simons, P. R. J., Wijngaards, G., & van der Schaaf, M. F. (2012).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s to analyse students' reflective essays: A methodological review of psychometric and edumetric aspect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7(1), 19-37.
- Richards, T., & Richards, L. (1998). Using Computer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pp. 211-245). California: Sage.
- Rourke, L., Anderson, T., Garrison, D. R., & Archer, W. (2001).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content analysis of computer conference transcrip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12, 8-22.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Vaughn, S. R.,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Walker, A. J., Thompson, L., & Morgan, C. S.
(1987). Two generations of mothers and daughters: Role position and interdepend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195-208.
- 1차원고접수 : 2016.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9. 08.
최종원고접수 : 2016. 09. 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mother-daughter intimacy during the daughter's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Nam, Soonhyeon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Kwon, Junghye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Recently,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mportance of online family interactions as on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me more active.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onlin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daughter's transition proces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wice by the first author. The first interview group consisted of 5 single females and the second group of 5 married females, who were selected through the convenience sampling from November 26, 2013 to December 11, 2013. It was found that the online intimacy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could be defined operationally as the deepened affection through close contacts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Results showed that the onlin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could be divided by the online communication avoidance period, the online communication exploration period, the online communication amplification period, and the stable online communication period. In the online communication avoidance period, the daughter's online activities created conflicts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lthough both of them were engaged in online communication, the mother took part in more online activities in the initial online contacts. In the online communication amplification period, mother and daughter planned her marriage in the near future, which was a major event for all daughters. The onlin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became closer as they prepared for this event. In the stable online communication period, they did not always touch base online, but they still maintained daily online communication. The daughter's offspring became the focus of the online communica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online communication provided a basis for both mother and daughter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deepen their affection.

Key words : online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timacy, the qualitative research,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focus group interview